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4. 13(수)	
		작성	국정운영실 법무행정과 과장 전창현 / 서기관 이영일 (Tel. 044-200-2090)
		문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과장 나치만 / 서기관 김이주 (Tel. 044-202-5511)
<p>* 엠바고 : 4.13(수) 11시30분(행사 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가보훈처</p>			

고령의 애국지사 자택 찾아가 나라 위한 헌신에 감사

- 황 총리, 임시정부수립 기념일(4.13)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 유순희 애국지사 방문

□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4월 13일(수) 오전에 서울시 신내동에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유순희(90세) 애국지사의 자택을 찾아,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여성 독립운동가 총 272명 중 현재 3명만 생존

○ 이에 앞서 황 총리는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원로 독립유공자, 유족, 각계대표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였다.

* 기념식은 애국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호국정신으로 계승하고자 ‘선열들이 되찾은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

□ 유순희 애국지사는 황해도 황주 출생으로 1944년에 임시정부 지하공작원, 1945년에 한국광복군 제3지대 지하공작원 및 구호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훈으로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 받았다.

- 남편인 최시화* 애국지사('43년 혼인)와는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6·25전쟁 때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홀로 세 자녀를 키웠다.

* 황해도 황주 출생, 광복군 제3지대 입대 항일활동 전개, '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 **황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고,

- 정부는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온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첨부) 유순희 애국지사 간단소개

□ 인적사항

- 1926년생, 90세, 황해도 황주 출생, 현재 서울시 중랑구 거주
- 가족사항 : 2남 1녀, 손자녀 6명
 - * 배우자(최시화 지사)와는 6·25전쟁 시 헤어져 소식을 알지 못함
다만, 공부(公簿)상으로는 돌아가신 것으로 등재(유순희 지사 신청)

□ 공적사항

- 공적사항
 -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하공작원 및 광복군 제3지대 구호대원 활동

황해도 황주(黃州) 사람이다. 1944년 11월 중국 하남성(河南省) 녹읍(鹿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전방 특파원 조성산(趙城山)과 접선하여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한 그는 1945년 2월 김학규가 이끄는 광복군 제3지대 화중지구(華中地區) 지하공작원 윤창호(尹昌浩)로부터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동월 중순 동지(同地)를 탈출하여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한 뒤 제3지대 제1구대 본부 구호대원(救護隊員)으로 광복이 될 때까지 조국독립투쟁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독립운동사 제 6권 -

- (남편) 최시화 지사 (애족장, 1921~1967)

황해도 황주(黃州) 사람이다 그는 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 제3분대에 입대하여 항일 활동을 전개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 제 6권 -